

# 전남도, 우주산업으로 미래 먹거리 찾는다

### 고흥서 우주발사체 산업 클러스터 용역 중간 보고회 특화단지 조성·지원센터 구축·전문인력 양성 등 제시

전남도가 민간기업이 주도하는 우주개발 체계로 전환되는 산업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 '우주발사체 산업 클러스터 조성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남도는 지난 27일 고흥군청 흉양홀에서 주순선 전략산업국장, 송귀근 고흥군수, 송병철 한국항공공우연구원 나로우주센터 실장, 윤용현 국민대학교수, 박준영 배제대 교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우주발사체 산업 클러스터 조성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는 용역 수행사인 날리지웍스의 용역 추진상황 보고에 이어 대학 교수, 전문연구원 등의 질의응답과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지난 3월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전남도와 날리지웍스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비롯해 국내 우주산업을 주도하는 279개 관련 기업을 방문 또는 설문조사해 실수요를 조사하고, 우주발사체 관련 기업의 애로사항을 파악해 이에 대한 다양한 해결방안 등을 제시했다.

특히 기업들은 발사체 장거리 이동 시 고비용 및 고장 발생 등이 우려됨에 따라 클러스터의 위치를 나로우주센터 인근으로 희망했다. 나로우주센터 면 고흥이 우주발사체 앵커기업 유치 효과와 함께 기업 애로사항 해결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최근 우주산업은 뉴 스페이스(New Space) 시

대 등장으로 정책 방향이 국가 주도에서 민간주도로 전환하는 추세다. 특히 우주산업클러스터 지정, 정부 우주개발시설 민간 개방, 우주창업 촉진 및 인력 양성 등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이 진행 중이다. 정부도 5G·6G 저궤통신위성 기술개발을 추진하는 등 민간 상용화 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다.

공공분야 우주발사체 수요분석 결과 2021년부터 2048년까지 중형 발사체 49기, 소형 발사체 40기 등 연평균 3.18회의 발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위성통신 기업도 2030년 이후 총 2000기 이상을 발사할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중간보고회에서는 이에 대한 대응 과제로 ▲우주기업 특화산업단지 조성 ▲우주기업지원센터 구축 ▲우주개발 핵심인프라 구축 ▲우주과학 복합 테마단지 조성 ▲전문인력 양성 및 기업 인력공급 계획 등이 제시됐다.

토론에서는 ▲기업 요구와 현장의 문제점 해결 방안 구체화 ▲민간기업 해외 발사장 및 시험·평가 장비 활용실적 분석 ▲발사체 관련 앵커기업 유치를 위한 산업단지 조기 착공 등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전남도는 보고회에서 수렴한 다양한 의견을 용역에 반영해 정부정책과 연계하고 다른 지역과 차별화한 신규사업을 발굴, 용역이 마무리되는 오는 9월부터 국가 우주발전 정책에 반영되도록 적극적인 건의 활동을 펼칠 방침이다.

주순선 국장은 "국내 유일 나로우주센터가 위치한 고흥은 국가 우주산업 중심지로, 우주발사체 산업을 발전시킬 최적의 조건을 갖췄다"며 "나로우주센터와 연계해 민간기업이 정주하면서 기술개발과 시험·평가·인증을 원스톱으로 수행하는 우주발사체 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풍암마을 에너지 거점센터 조성 광주시, 마을 특화 사업 본격화

광주시가 에너지 전환마을 거점센터 조성을 마무리하고 마을별 특화사업을 본격화한다.

광주시는 "시민 주도형 에너지전환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 전환마을 사업의 거점센터 5호점인 '풍암마을 에너지거점 센터'를 개소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풍암마을을 마지막으로 올해 계획한 5개의 거점센터를 모두 조성함에 따라 거점센터를 중심으로 마을별 특화 사업을 진행한다.

'풍암마을 에너지거점 센터'는 풍암동 일대 3개의 공간을 활용해 에너지전환 사업을 추진한다. 거점센터는 에너지전환 관련 교육과 홍보의 장으로 활용하고, 풍암 행복주민센터 옥상에 조성한 태양광발전체험학습장에는 5kW급 태양광 발전시설과 풍력발전 설비를 설치해 재생에너지를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도록 한다. 또 광주다일교회에 자원순환센터를 조성해 우유팩 등 재활용 쓰레기를 수집하는 제로웨이스트(Zero Waste) 캠페인을 실시한다.

앞서 광주시는 지난 4월 공모를 시작으로 5개 마을 네트워크 참여단체들이 참여해 기후위기 극복과 에너지 문제 해결을 위한 에너지 전환마을 거점센터 조성을 추진해왔다. 1호점인 청담마을 에너지전환 카페는 지난 7월 2일 문을 열었으며, 같은 달 13일에는 2호점인 지리마을 에너지전환 센터가, 29일에는 3호점인 일곡전환마을 에너지거점센터가 개소했다. 4호점인 양림전환마을 에너지거점센터는 지난 25일 개소식을 갖고 운영중이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전남도, 9월부터 20억 증액 노인일자리 1346명 추가 창출

전남도는 20억원의 노인일자리사업비를 증액해 1346개의 신규 일자리를 만들어 제공하기로 했다.

전남도는 29일 "3차 추경을 통해 노인일자리 사업비 20억원을 증액해 1346명의 어르신에게 9월부터 3개월간 신규 일자리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전남도가 제공하는 노인일자리 5만1860개로 늘어났다. 지원 예산 규모는 1793억원이다.

이번에 신규 확대하는 일자리는 공공시설 봉사, 지역사회 환경개선 봉사 등 공익활동형 812명, 지역아동센터, 복지관 등 사회복지시설 업무지원을 위한 사회서비스형에 534명이다. 저소득 노인의 사회 참여와 소득 보충을 지원한다.

공익활동형은 월 30시간 활동 시 27만원, 사회서비스형 월 60시간 활동 시 71만원을 각각 지급한다.

참여 대상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다. 참여자 선발은 지난해 12월 노인일자리 신청했으나 사업량 부족으로 참여 대기하고 있는 어르신 중 우선 선발하고, 대기자가 없으면 추가 모집을 통해 신규 선발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어르신이 거주하는 시군에 문의하면 된다.

또 안전사고에 취약한 어르신을 보호하기 위해 안전교육을 하고 상해보험 등을 가입하고 있으며,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사업장 마련을 위해 참여자 모집 시 백신을 접종한 경우 가점(5점)을 부여하고 있다.

손선미 전남도 노인복지과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활동량이 줄고 사회적 관계가 축소된 어르신에게 사회활동을 장려해 활기찬 노후 생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코로나19에 취약한 어르신이 방역수칙을 잘 지켜 안전하게 일자리에 참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천 뽕뽕다리 개설공사 착공식 27일 오후 서구 양3동 발산마을 앞 광주천변에서 열린 '광주천 뽕뽕다리 개설공사 착공식'에서 이용섭 광주시장과 참석자들이 시삽을 하고 있다. /광주광역시 제공

## "조선 기능인력 확충해 달라" 전남도, 정부에 지원 건의

전남도가 29일 조선사 수주 물량 급증에 따른 원활한 조선 인력 수급을 위해 고용노동부에 기능인력 훈련수당 인상, 조선업 특별고용업종 지정 연장 등을 강력히 건의했다.

지난 27일 고용노동부는 전남인적자원개발위원회에서 '호남권 조선산업 인력수급 현장감담회'를 열고 전남도, 목포고용노동지청, 현대삼호중공업, 대한조선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전남 조선업 인력수급 현황과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하고, 기업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전남지역 주요 조선사는 올해 상반기에만 44척을 수주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배 이상 실적을 냈다. 전남도는 지난해 말부터 늘어난 수주 물량이 현장 일감으로 연결되는 2022년 초부터 인력 부족 상황이 본격화함에 따라 조선 기능인력 확보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건의했다.

특히 2016년 수주절벽에 따른 대규모 인력 구조조정 여파와 청년층의 기피 업종 인식 등으로 모집 자체가 어려운 점을 감안해 현재 40만원인 조선 기능인력 훈련수당을 80만원으로 인상할 것을 요청했다. 전남도가 지원하는 훈련수당 60만원을 더하면 4인 가구 최저생계비인 146만원 수준의 보장이 가능해 훈련생 유입이 더 활발해질 전망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순천 해룡산단 1500억 들여 이산화탄소 포집 생산 공장

### 전남도, 로우카본과 협약 연간 100만t 2024년 준공

전남도가 지난 27일 전처리 탈황제 생산업체인 (주)로우카본과 1500억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해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에 보탬이 될 이산화탄소 포집·자원화 시스템을 순천에 구축하기로 했다.

이날 전남도청 서재필실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윤병태 전남도 정부부지사, 이철 로우카본 대표이사, 임재영 순천부시장, 송상락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이 참석했다.

강진에 본사를 둔 로우카본은 순천 해룡산단 3만404㎡ 부지에 1500억원을 투자해 연간 100만t 규모의 이산화탄소 포집제 생산 공장을 오는 2024년까지 준공한다. 200명의 신규고용 창출이 예상된다.

로우카본은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는 혁신 소재를 생산하는 환경 선도기업이다. 현재 탈황용 촉매와 제조 방법 및 이를 이용한 탈황방법 등 국내외 특허등록·출원 22개를 보유하고 있다.

또 한국서부발전, 한국남부발전, 러시아-베트남·중국 등 해외 화력발전소 등 국내외 대형 발전사와 전처리 탈황 시스템 및 탄소자원화 기술 적용을

위한 사업 계약을 체결했다.

현재 이산화탄소 측정·포집·전환 설비를 설치해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인공 숲(K-Forest) 사업을 구상 중이다. 앞으로 전남의 2050 탄소중립에 기여할 전망이다.

윤병태 부지사는 "로우카본은 탄소중립으로의 전환이 필수적인 시대 한국형 그린뉴딜을 선도할 우수 기술을 가진 기업"이라며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전남도와 순천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이 적극 지원하고, 기업은 그동안의 투자가 결실을 보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자산·공제 3,000억 달성 기념 경품 대 잔치

■응모기간: 2021년 4월 15일 ~ 9월 30일 ■추첨일자: 2021년 10월 20일

1등 스타일러

2등 노트북

3등 음식물처리기

4등 로봇청소기

5등 공기청정기

**응모권 지급 조건**

- 출자금 신규 및 추가 10만원 입금
- 정기예금 신규
- 정기적금 신규
- 대출 신규 (범위내, 공제약관 제외)
- 공제 상품 가입 (생명, 화재)
- 체크카드 신규 발급 (영수증 제출)
- 자동이체 신규
- 가맹점 결제계좌 신규

**정기예탁금**  
2.2% (2년)  
2.1% (1년)

**2020년 출자금**  
3.0% 배당

**정기적금**  
1년 3.0%

**자신만만자유예탁금**  
 하루만 맡겨도  
최고 1.5%

신축사옥 임대문의 환영

※임대업종: 한방병원, 병의원, 커피숍, 초밥전문점 등

※상기 이미지는 실제상품과 다를 수 있으며, 제세공과금은 본인 부담입니다. (중복당첨 시 최상위 경품 1개에 한하여 지급함)

**MG금남새마을금고** 본점 T.223-8007(대인동 한미쇼핑 1층) 총장지점 T.223-7217(충장로5가입구)